

연세대학교에서 여성 교수의 채용을 바란다

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%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,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 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연세대에서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여교수 비율 관련 학생 요구안입니다.

전국 대학에서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36.3%이며 해가 갈수록 여성의 대학 진학은 늘고 있습니다. 전국 박사학위 소지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.9%(1만4486명)를 차지하며, 대학 시간강사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.4%(1만7926명)에 이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.1%(사립대 16.1%, 국공립대 8.8%)에 불과하고,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.4%에 불과합니다.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뺀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 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.

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8.8%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 습니다. 이는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 평균(16.1%)에 못미치는 국공립대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. 장기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20%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,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.

연세대학교를 보면 현재 세브란스 의료원을 제외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여교수는 70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%입니다. 이는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비율에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. 그리고 이중 생활과학대학과 음악 대학과 같이 여성 교수가 많은 단대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여교수는 31명으로 5% 미만에 불과합니다.

학부에서 여학생은 37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석박사 과정에서 여학생 비율은 33.2%입니다. 하지만 법과대나 상경대 같 은 단대의 경우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실정입니다. 법과대 여학생은 31.6%, 상경대는 29.0%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수는 전혀 없습니다.

그나마 2003년 연세대 교수 채용에 법과대에 여성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. 지난 6월 10일 협상한 이행과 관련해서 협의 하기 위해 개최된 교수학생협의회에서 학교측은 올해 법대에서 여교수를 한 명 채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연대 법대 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법과대에서는 19명중 단 한 명의 여성 교수만 존 재하게 되는 것입니다.

지난 시간동안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. ‘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’, ‘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’, ‘대찬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.’ 권리와 평등을 얘기하는 남성 교수님들 사이에서 여성 교수와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반응입니다.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수 사회에 있어서 교수로서 필요한 연구 업적이나 실력, 도덕성 등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여교수 비율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보다 한 달여 앞서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 20%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사립대보다 낮은 연세대 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.

연세대학교에서 여성 교수의 채용을 바란다

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%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,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연세대에서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여교수 비율 관련 학생 요구안입니다.

전국 대학에서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36.3%이며 해가 갈수록 여성의 대학 진학은 늘고 있습니다. 전국 박사학위 소지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.9%(1만4486명)를 차지하며, 대학 시간강사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.4%(1만7926명)에 이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.1%(사립대 16.1%, 국공립대 8.8%)에 불과하고,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.4%에 불과합니다.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뺀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.

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8.8%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는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 평균(16.1%)에 못미치는 국공립대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. 장기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20%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,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.

연세대학교를 보면 현재 세브란스 의료를 제외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여교수는 70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%입니다. 이는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비율에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. 그리고 이중 생활과학대학과 음악대학과 같이 여성 교수가 많은 단대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여교수는 31명으로 5% 미만에 불과합니다.

학부에서 여학생은 37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석박사 과정에서 여학생 비율은 33.2%입니다. 하지만 법과대나 상경대 같은 단대의 경우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실정입니다. 법과대 여학생은 31.6%, 상경대는 29.0%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수는 전혀 없습니다.

그나마 2003년 연세대 교수 채용에 법과대에 여성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. 지난 6월 10일 협상한 이행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교수학생협의회에서 학교측은 올해 법대에서 여교수를 한 명 채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연대 법대 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법과대에서는 19명중 단 한 명의 여성 교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.

지난 시간동안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. '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', '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', '대찬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.' 권리와 평등을 얘기하는 남성 교수님들 사이에서 여성 교수와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반응입니다.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수 사회에 있어서 교수로서 필요한 연구 업적이나 실력, 도덕성 등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여교수 비율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보다 한 달여 앞서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 20%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사립대보다 낮은 연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.

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